

5/26/24

설교 제목: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말라기 2 장 1-16 절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말 2: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절관주** 말 1:7

(말 2: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 2: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관주** 레 26:16, 나 3:6

(말 2: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절관주** 민 3:45

(말 2: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 2: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 2: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절관주** 신 17:9

(말 2: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 2: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삼상 2:30, 미 3:7

거짓을 행하는 유다

(말 2: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 (말 2: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절관주** 렘 3:7-9
- (말 2: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절관주** 말 1:10
- (말 2: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 (말 2: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 (말 2: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 (말 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절관주** 마 5:3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에 잡혀가 70 년을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였습니다. 귀환할 당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는 꿈과 기대에 부풀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양식을 마련하는데 급급해 성전 재건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학개 스가랴 등 선지자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BC 516 년 제 2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BC 445 년 예루살렘 성벽까지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개 스가랴 등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의 지배 하에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산산히 무너졌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배신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갔고, 이에 따라 제사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지냈습니다.

제물로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들을 가져다 바쳤고, 제사장들은 이런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1 장에 이어 계속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있는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을 이미 저주하였으나 그럼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저주를 내려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 2: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 2: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과 제사를 심히 멸시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엄위한 보응입니다.

(말 2: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의 자손을 책망할 것이고, 그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사장에게 이같은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말 2: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 2: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 2: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와 세운 언약을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하나님이 레위 자손 중 아론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그것은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 6:49)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죄를 받게 하여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직책을 맡기신 것은 당신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 봉사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 2: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 2: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고 그 입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했으나,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율법을 시행함에 있어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치우쳐 적용하였습니다.

(말 2: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역자,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역자들은
하나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삼상 2: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삼상 2: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지만 모든 것이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을 책망
하십니다.

(말 2: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민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말 2: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 7:3)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신 7: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말 2: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그 죄악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자나 피동적으로 그 선도에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같은 짓을 행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럭저럭 넘어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자들 모두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집 곧 참교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말 2: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 2: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됴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의 제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뻔뻔하게도 '어찌 됴이니이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아내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2: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 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오직 하나만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임에도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조상과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또 어린 시절 취했던 아내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 앞에 신실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